

‘불수능 예고’에 재수생 줄었다... 올 대입 지원 총 59.5만명

재학생 응시자 3237명 증가
재수생 4년 만에 1.5% 감소
반수생도 줄어 재학생 유리
수학가형·과학탐구 지원 ↓
탐구과목 쏠림현상 더 커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년보다 응시인원은 증가한 반면, 재수생 비율이 감소해 재학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수생 중 최상위권이 다수를 차지해 재수생이 상위권 이상 재학생 감세가 예상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9만4924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 수능 응시자 59만4924명... 전년 대비 1397명 증가

응시자 중 재학생은 44만8111명(75.3%), 졸업생은 13만5482명(22.8%), 검정고시 등 1만1331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달 23일 시작해 지난 7일 마감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재수생 응시자가 감소해 재학생 감세가 예상된다. /뉴스시스

(1.9%)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만 6141명(51.5%), 여성 28만8783명(48.5%)였다.

전체 응시자는 전년보다 1397명(0.2%) 증가했다.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은 증가했지만,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은 감소했다. 응시자 수도 재학생은 3237명 증가했지만, 졸업생은 전년보다 2050명(1.5%)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 증가는 현 고3인 2000년생 출생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지속 증가했던 졸업생 지원자는 다소 감소했다. 이는 2019학년도 정시 모집 비율이 2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까다롭게 나와 ‘불수능’이 예고되는 등 졸업생의 재도전 지원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최근 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낮은 수시모집 전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수생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도 파악된다. 최상위권을 위주로 한 재수생 감소에 따라 현역인 재학생 상위권 이상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학가형, 과탐 응시자 감소

응시자 중 수능 영역별 지원자 비율은 국어(99.5%), 수학가형(32.2%), 수학나형(67.8%), 영어(99.0%), 한국사(100%), 사회탐구(52.9%), 과학탐구(45.9%), 직업탐구(1.2%), 제2외국어/한문(15.5%)였다.

수학의 경우 주로 이과 수험생이 선택하는 가형 응시인원은 4035명이 줄고, 문과형인 수학나형은 6879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모의평가 이후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까다롭게 느꼈던 수학가형 대신 수학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수도 전년보다 1349명(0.5%) 감소했다. 하지만 탐구영역 중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활과 윤

리, 사회·문화, 지구과학I과 생명과학I은 접수인원이 늘어 탐구 과목간 쏠림 현상이 더 커졌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많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도 360명(0.4%) 줄었지만, 제2외국어 중 ‘아랍어 I’ 선택자는 69.0%를 차지해 아랍어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전체적으로 수학가형과 과학탐구 지원자가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일부 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도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수학나형이나 사회탐구를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는 자연계 학과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보다는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이 자연계 모집단위라도 수학 나형 또는 사회탐구를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60% 채용시 여전히 ‘남성 선호’

사람인 기업 489곳 대상 설문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 順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재채용시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은 기업 48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시 지원자 성별 고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60.7%가 ‘채용시 성별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채용시 성별을 고려하는 기업의 업종은 ‘제조’(28.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17.2%), ‘유통/무역’(9.1%), ‘IT/정보통신’(8.8%) 등의 순이었다. 성별 고려는 ‘일부 직무의 채용’(69.7%)에서 고려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들 기업이 지원자의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성별에 따른 적합한 직무가 있어서’(74.1%)가 가장 많았

다. 계속해서 ‘야근, 출장 등이 발생할 상황을 고려해서’(23.2%), ‘성별에 따라 역량이 달라서’(19.2%),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서’(8.4%), ‘유연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돼서’(7.7%) 등의 이유가 있었다.

채용시 성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 더 유리한 성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들이 더 유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68.4%로 여성이 유리한 편(31.6%)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무려 2배 가량 많았다.

남성이 더 유리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 특성상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많아서’(77.3%)가 가장 많았고, ‘신체조건 등 타고난 강점이 있어서’(22.2%), ‘근속 가능성이 더 높아서’(18.7%), ‘조직 적응력이 더 우수해서’(12.3%),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채용 스타트... 취업 연계 영어교육 ‘붐물’

면접 영어·토익스피킹·해외 인턴 등
취준생·직장인 위한 스펙업 상품 ↑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본격 시작되면서 교육업계에서 취업준비생을 겨냥한 학습 상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edm에듀케이션은 토익스피킹 전문 인강 브랜드 edm 토익스피킹을 론칭하고 ‘역습토스’ 강의를 시작한다. 역습토스는 집중도가 높은 학습 초반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6 문제부터 공략해 자연스럽게 토익스피킹 전 영역을 숙달하는 개념의 학습법이다.

온라인 어학연수 랭쎬(LANGSSE)는 토익스피킹은 물론 영어 면접까지 대비하는 4주 취업 영어편을 출시했다. 하루 20분 강의를 수강하면 4주 만에 100여개 영어 면접 대비 문장을 익힐 수 있다.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의 영어 인터뷰 필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자격증도 인기다. 장원교육 그룹 계열사인 장원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최근 재취업을 위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한국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서의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격증으로 각광받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온라인수업과 실습만으로 준비할 수 있어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 취득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턴 연간 34시간 코딩교육 이수 의무화되면서 코딩 전문 지도 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교육도 관심을 끈다. 국내 첫 연구기반 스펙교육 기관인 이큐STEM(EQSTEM)은

취업이나 창업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 가능한 로보지도사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1일 개강하는 3급 개강반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나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총 4주 온라인 수업 40시간, 실습 10시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취업이나 스타트업 창업 등을 대비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인턴십 대비 과정도 눈에 띈다. 오는 10월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100여 개 대학과 어학기관이 대거 참가하는 제2회 edm세계유학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미국 실리컨밸리 현지 기업의 교육과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상담할 수 있다.

또 내달 10월 13일, 14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제14회 영국유학박람회가 열린다. 옥스퍼드 경영대학원(MBA), 맨체스터대 등 영국 명문대 교수와 입학담당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 영국 대학 전공 소개는 물론 인턴십을 제공하는 대학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이화여대 총동창회, 13일 모교서 바자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동창간 교류 확대와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정기 대바자회를 13일 오전 10시~17시까지 교내 생활환경문화관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바자회에서는 유기농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 국내외 유명 브랜드 의류제품, 화

장품, 침구류, 아동용품, 애완동물용품, 주방용품, 구두, 액세서리 등이 판매된다.

또 동창생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과 기증받은 알뜰 품목 등 바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국대 ‘2018 동국창업리그’ 28일까지 접수

동국대학교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업인식 확산을 위한 ‘2018 동국창업리그’ 참가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기술과 제조 기반 창업이 가능한 우수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선발한다.

28일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내달 25일 최종 9개 팀을 선발, 차년도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결선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9개 팀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청은 28일 17시까지, 동국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한용수 기자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3기 모집

KT&G가 오는 28일까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인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상 스타트업 캠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총 14주간의 전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KT&G의 청년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회혁신 스타트업으로 런칭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현직 창업가들의 팀별 전담 코칭과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전 사회혁신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전 과정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 모집은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 후 10월 22일 입문캠프를 시작으로 1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T&G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억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상상 스타트업 캠프를 기획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사업가로 성장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청년창업 지원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전용 공간도 확보해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YBM은 지난 7일 경동대 메디컬캠퍼스와 ‘재학생의 어학, IT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YBM

YBM-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재학생 어학·IT 강화 MOU

YBM은 지난 7일 경동대 메디컬캠퍼스와 ‘재학생의 어학, IT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YBM의 어학, IT 교육,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재학생들의 관련 역량강화가 추진된다.

/한용수 기자